

2009학년도
석사학위논문

김은석 목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

2009

한성신학교 목회대학원
목회학 전공
정 인 조

2009학년도
석사학위논문

김은석 목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상 호

2009 년 2 월

한성신학교 목회대학원

정 인 조

김은석 목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상 호

이 논문을 목회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 년 2 월

한성신학교 목회대학원

정 인 조

정 인 조의 목회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09 年 2月

학위논문 심사 위원

주심 _____

부심 _____

부심 _____

한성신학교 목회대학원

감사의 글

목회자의 소명을 주시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김상호 교수님과 논문 심사를 하여 주신 장성우 교수님, 최금생 교수님, 그리고 김영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후진 양성을 위해 수고하시고 계시며 자료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한민대학교 조동호 교수님, 그리고 이 논문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세종대학교 이은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포근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자 애써 주신 강희경 목사님, 부족한 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며 격려해 주신 부모님, 주의 길에 항상 나와 함께 해준 사랑하는 아내 박은실 집사, 논문이 뭔지도 모르면서 같이 고민해 주고 응원해 준 사랑스런 자녀 드보라와 다윗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09년 2월

정 인 조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2. 선행 연구	2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II 김은석의 생애와 사역	6
1. 출생과 초기 신앙생활	6
2. 그리스도의 교회로의 환원	10
3. 신화신학과 제자 양육	12
III 김은석의 신학사상	16
1. 미국내 초기 환원운동자들의 성령론	16
2. 신화신학의 성령론	24
3. 성령론의 비교	29
IV. 김은석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34
1. 교회사적 의의	34
2. 김은석의 환원 동지들	36
* 정찬성	36
* 김교인	38
* 신현창	39
* 장주열	39
* 김명석	40
* 김재순	41
* 최요한	41
* 김상호	42
* 김정만	43

* 심영진	44
* 이 신	45
V 결 론	48
VI 참고문헌	53

I. 서론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스톤, 캠벨로부터 시작된 환원 운동의 역사가 300여년을 흐르고 있는 지금까지 미국내 초기 환원 운동가들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결실들을 맺게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학 사상과 학문적 체제가 굳건한 자리를 굳혔으며 이제 세상을 향한 힘찬 선교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가슴 뿌듯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내 초기 환원 운동가들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연구는 몇몇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을 뿐 초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교와 포교를 위해 열정과 힘을 다 쏟은 수많은 인물들의 업적은 깊이 숨겨져, 한국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 잘 모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룩하는 데 공헌하고 밑거름이 되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인물들에 관한 연구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와 사상을 연구하고 정립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은석은 광복이후(1950년대)의 한국 그리스도 교회사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장로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여 남부(충청이남)지방에 자생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목사였다¹⁾. 남부(충청이남)지방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또한 이 시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학적 특징과 형태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연구는 벌써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 점에서 김은석에 대한 연구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뿌리를 찾고 그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김은석 연구에 있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점은 그의 사상에 있다. 그는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통 교

1) 조동호, 「그리스도의 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02), p87

역자들이 주장하는 ‘성령 역사의 단회적 오순절 성령론’²⁾과는 다른 성령 중심의 운동, 즉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성령 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³⁾. 그의 이러한 성령론에 대한 연구는 현재 침체되어 있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령 운동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김은석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남부(충청이남)지방의 자생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가 조금이나마 밝혀질 것이며, 지방의 그리스도의 교회 사역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환원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에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와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상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이 논문이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

본 논문을 통해 언급되겠지만, 김은석은 초기 자생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었던 사도시대 오순절 성령의 강한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이며 그의 ‘신화 신학’은 1950년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를 통한 성령의 강한 역사는 남부(충청이남)지방의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흥 운동으로 진행된 역사적 의의를 가지게 한다⁴⁾. 이러한 김은석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여러 교파의 장벽과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통적인 성령론의 벽에 막혀 사역의 어려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사역자들에게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선행연구

지금까지 김은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 Ibid., p93

3)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도서출판 한림, 2006), p310

4) 조동호, op. cit., p87-89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인물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에 대한 연구 논저로는 1970년 연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김세복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1930~1968」⁵⁾가 있다. 1986년 한국목회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김홍철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성장사」 논문⁶⁾, 1992년 그리스도 신학대학 학사 논문으로 제출된 신민철의 「그리스도의 교회사 연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중심으로」 논문⁷⁾, 그리고 1996년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임정규의 「환원운동을 중심으로 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적 변천과정」 논문⁸⁾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연구들이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익진에 의해 주로 이루어 졌으며 그가 1987년에 출판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 운동사」⁹⁾는 주목할 만한 책이다. 최근에는 최상현의 아들 최윤권에 의해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2003년」¹⁰⁾가 출판되기도 하였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인물에 관한 연구로는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구자였던 동석기 전도자에 대한 김익진의 연구가 있다. 그는 1930년 11월 한국인 최초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 동석기 전도자의 생애와 신학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¹¹⁾. 김익진은 또한 2002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교 : 동석기와 강명석을 중심으로」를 <역사신학 논총> 제 4집에 발표하여 한국 교회에서 신약 교회 운동을 선구자적으로 시작하였던 동석기와 강명석에 대해 연구하였다¹²⁾.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인물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는 1927년 충남 부여에 기독교회를 세워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석을 다진 성낙소의 자서전을

5) 김세복,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1930-1968)」(참빛사, 1969)

6) 김홍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성장사」(한국 목회대학원 석사 논문, 1986)

7) 신민철, 「그리스도의 교회사 연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중심으로」(그리스도 신학대학 학사 논문, 1992)

8) 임정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적 변천과정」(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6)

9) 김익진, 「환원 운동사」(참빛출판사, 1987)

10)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서울문화인쇄, 2003)

11) 김익진, 「동석기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한국기독교와 역사 제8호, 1998년 3월호), p213-236

12) 김익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동석기와 강명석을 중심으로」(역사신학 논총 제4집, 2002년 1월호), p101-140

현대어로 엮은 오수강의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2007)¹³⁾와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를 한국에 뿌리내리게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최상현에 대해 연구한 이은대의 「최상현 목사의 사상과 신학」(2007)¹⁴⁾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한국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1세대 지도자들인 동석기, 강명석, 성낙소, 최상현 등에 대한 연구는 그리스도의 교회 1세대 지도자들의 삶과 사상을 밝혀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남부(충청이남)지방의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와 관련된 사건과 인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 김은석에 대한 본 연구가 50년대의 남부(충청이남)지방의 자생적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와 사상을 밝혀내는데 미약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김은석 목사와 그 동역자들을 통해 남부(충청이남)지방을 뒤덮었던 뜨거운 성령 운동이 침체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연구자의 간절한 바람이다.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 논문은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물론 자료의 부족이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료를 분석, 고찰, 정리하여 김은석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살펴보고 역사적 상황과 변화, 그 시대의 의의에 주목하는 교회사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그의 신학 사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김은석의 성령 운동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이신 박사의 성령론을 토대로 그의 성령론을 연구해 나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김은석이 태어났던 1902년부터 소천한 1963년까지, 즉 60

13) 오수강,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2007)

14) 이은대, 「최상현 목사의 사상과 신학」(쿰란출판사, 2007)

여 년 동안의 시기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며 이를 위해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적 배경이 언급될 것이다. 김은석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는 1940 ~ 1950년대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제 II장 “김은석의 생애와 사역”에서는 그의 출생부터 소천 때까지의 생애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20대 후반 만주 지방과 일본에서의 복음전도와 1945년 부강 오데골교회의 초빙과 성령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로의 환원과 신화신학 성경연구원을 통한 복음전도의 과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제 III장 “김은석의 신학 사상”에서는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령론과 김은석의 성령론을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제 IV장 “김은석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김은석의 사역과 그의 성령론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교회사적 측면에서 연구해 나갈 것이며 특히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역자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각 장에 논의된 김은석의 생애, 사상과 신학, 신앙적 여러 면모를 종합 정리하여 한국 교회사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의의에 대해 평가해 보고 그의 신학적 사상(즉 성령운동론)을 토대로 앞으로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김은석의 생애와 사역

1. 출생과 초기 신앙생활

김은석은 1902년 5월 14일(추정) 황해도 평산군 평산면 당구리의 한 기독교(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1m 80cm 정도의 훗칠한 키에 80kg 정도의 건강한 육체의 힘이 센 체격의 소유자로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하였다. 기 보다는 젊은 시절에 한 때 크게 실망 중에 있을 때에 성경을 100독함으로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체득하였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며 성경을 다독하며 성경을 많이 암송함으로써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받게 되었다.¹⁵⁾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가혹한 것이었다. 헌병경찰제도에 의한 무단통치로 한국인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약되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대표되는 합법을 가장한 약탈적 경제정책은 당시 대부분 농민이었던 한국인들의 생활 터전인 농토마저 빼앗아, 농민들을 극도로 빈궁한 소작농으로 전락시켰다. 또한 우민화 정책 및 동화 정책을 목적으로 한 식민지 교육과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강요하는 민족 차별정책 등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게 하였다. 그리하여 기회만 오면 독립해야한다는 생각이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¹⁶⁾

이 시기 일제의 종교에 대한 기본 정책은 회유, 이용과 탄압, 박멸이라는 기만적인 이중 탄압정책이었다. 즉 그들의 식민통치에 유익한 방향으로 종교를 회유, 이용하든가 이에 방해가 되거나 저항할 경우 가차 없이 탄압, 박멸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던 것이다.¹⁷⁾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은석은 가난과 무지로 희망을 잃고 사는 동포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15) 목포그리스도의교회, op. cit., p301

1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기독교문사, 1990), p25

17) Ibid., p26-27

말라. 신사참배는 죄다.”라고 가는 곳마다 외쳤다. 이로 인해 그는 항상 감시자에게 쫓겨 다녔고 일본 왜경의 감시와 박해가 점점 심해짐으로 인해 그는 고향땅을 떠나 만주로 가게 되었다.¹⁸⁾

1930년대 초 20대 후반에 김은석은 우리 동포들이 모여 사는 만주 길림성 등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회 전도에 전념하였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1차전도 여행에 이어 여러 지방으로 순회 전도를 다녔듯이 김은석은 만주 길림성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본국에서 온 감리교 출신인 정찬성을 만났다. 이들은 곧 의기가 합일하여 큰 위로가 되었다. 신사참배를 완강히 거부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에게 유명세가 붙기 시작하여 일본 왜경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활동의 제약을 받던 그는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와 장로교회의 전도자로 순회전도를 하게 되었다.¹⁹⁾

이 시기의 국내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1930년대 들어 일제는 식민지 한국에서 민족해방운동의 고조와 세계 경제 공황으로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봉착하자,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급격하게 군사 파쇼 체제로 전환하였다. 일제는 1931년 만주를 침략하고, 1932년에서 상하이 침공,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면서 1945년 패전할 때까지 한국을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개편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물자와 인력을 수탈하고, 동원 체제를 구축하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소위 ‘황국신민화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사참배 실시, 황국신민서사 제창, 창씨개명, 일본어 사용 등이 이전보다 훨씬 강요되었다.²⁰⁾

사실 일제는 한일합방 2년 후인 1912년부터 한국에 신사를 세울 계획을 하였고, 1918년 서울 남산에 조선 신사 건축에 착수한 지 8년 만에 조선신궁을 완공하게 된다. 이 조선신궁이 완공되면서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경성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조선총독부 앞으로 개진서를 제출하였고, 동년 9월 일부 전문학교의 학생들이 반대시위를 벌였고, 10월에는 선교사들이 일본 수호신을 경배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 처

18)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op.cit., p302

19) Ibid., p302-303

2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op. cit., p274

사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연희 전문학교의 기독교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불참
키로 결의하였다.²¹⁾

이 일로 한국에 대한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은 더욱 강경해졌고 전승을 기원
하는 신사참배 의식이 강제로 실시되었다. 이에 불응한 여러 학교가 폐교되
거나 자진 폐교하고 말았다. 이러한 와중에도 감리교 계통의 학교와 천주교
계통의 학교는 학교와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하며
학교를 운영해 나갔다. 천주교에서는 1936년 5월 교황청으로부터 지시를 받
고 신사참배를 시행하였다. 감리교회 역시도 선교사들은 물론 감리교 지도자
들도 대부분이 신사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명령에 순응하여, 학교나 교회
박해를 덜 받고 비교적 가볍게 넘길 수 있었다.²²⁾

신사참배를 완강히 거부해오던 장로교회에도 일본 경찰의 강압과 회유는 더
해져서, 이미 이때 평양 시내의 친일파인 평양 기독교친목회를 앞세워 신사참
배를 결의하도록 조정하였고, 당시 전국에서 제일 큰 노회인 평북노회에서 신
사참배를 결의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노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
었고, 제 27회 장로교 총회에서 참배를 결의할 것을 계획하고 반대한 목사들
을 사전에 구속하였다.²³⁾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예수 복음의 전도자로 살
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왜경들의 탄압은 점점 더 강해져
김은석의 목을 조여 왔다. 그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본으로
들어갈 것을 결심하였고 입국 증명도 없이 1935년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증명 없이 일본 땅을 밟았다는 이유로 늘 쫓겨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막노동판이나 탄광에서 노동을 하면서
주일날이면 일본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특히 시모노세키와 하관,
아사, 덕산, 그리고 동경 지방과 오사카 지방을 두루 순회하였으며 이때 김명
석과 박점상을 만나게 되었다. 점차 말씀 선포에 능력이 임하자 더욱 유명세
가 붙게 되었고, 특히 대동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교회 탄압이 시작되어 요시

21) 김수진, 「한일교회의 역사」(서울대한기독교서회,1990), p56-57

22) Ibid., p59

23) Ibid., p60

찰 대상으로 또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시모노세키 산구현 교회에서 김은석의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은 김명석은 자신이 5년 동안 번 돈으로 집을 사서 교회를 개척하여 그와 함께 교회를 시작하였고 이때 모인 교인수가 300여명 가량이 되었다.

소문이 퍼지자 일본 순사가 김은석을 관시청으로 끌고 가서 가미사마(일본 천황)가 더 높으나, 그리스도가 더 높으냐고 물었고 김은석은 가미사마는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높다고 대답하여 심한 고문을 당하고 감금되었다. 그러나 김완례 사모의 동생 남편이 일본 거주 민단의 친구봉 장로를 소개하여 그의 주선으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 천황신인 ‘가미사마를 믿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경시청에서 김은석을 체포하고자 그의 집을 급습하였다. 그러나 마침 그는 교회 순회에 나가고 없어서 체포되지는 않았으나 일본 경찰은 김은석 목사의 모든 서적을 불살라 버렸다.²⁴⁾

김은석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도할 때 산구현 도구야마시 가즈가조 8032에 ‘기리스도노 코오카이’라 불리는 교회가 있었는데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 그 교회당 건물에서 살고 있던 박점상을 만나게 된다. 박점상은 김은석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된다.²⁵⁾

김은석은 박점상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하와이에서 온 나이 많은 최창신이라는 여전도사와 그의 손녀 홍자라는 학생을 막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봉양하면서 주일이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우리 한국동포 교인들을 찾아다니며 소규모의 복음 집회를 열어나갔다. 그는 특히 신사참배를 목숨을 걸고 거부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가 전하는 ‘동방요나라’²⁶⁾를 거부하며 ‘가미사마를 믿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파했다.

24) 목포그리스도의교회, op. cit., p303

25) 조동호, op. cit., p137-138

26) 동북아 일치 일본 황국 건설

조국 해방 직전인 1944년 말 김은석을 체포하기 위해 또 다시 동경에서 형사가 급파되었으나 이미 그 때는 그가 어머니의 위중하다는 급전을 받고 일시 귀국하고자 일본을 떠난 뒤였다.²⁷⁾

1944년 초 고국에 계신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한 김은석은 조국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해방 후 한일해협이 봉쇄되어 일본으로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전도하며 복음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²⁸⁾

2. 그리스도의 교회로의 환원

1936년 장로교회 김교인 장로가 충북 청원군 부용면 오데골로 이사해 왔다. 그 곳엔 오데골 교회가 있었으나 교인수는 5-6명 정도였다. 그 당시 그 교회는 형편이 어려워 교역자를 모시지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김교인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 교인으로는 김규상의 어머니 구봉례 집사와 아버지 김봉관 그리고 그의 작은 어머니와 김교인 장로 가족 등이 고작이었다.

김교인 장로는 부장에 약방을 개업하였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크게 성공하여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김교인 장로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로 김교인 장로의 부인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청주 노회에 참석한 김교인 장로는 그곳에서 목사님 초빙할 교회를 찾는다는 광고를 듣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김장로가 그 말을 전하자 부인은 흔쾌히 동의했으나 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때 교인들은 사례비를 문제로 반대하였다. 김장로의 부인은 목사님 사례비를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교인들에게 공포하며 강권하여 교인들의 찬성을 이끌어 냈고 청주 노회로부터 당시 서울에서 활동하던 김은석을 초빙하였다.

김은석은 초빙 받아 오던 날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사택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에서 기도부터 시작하였다. 부임 즉시 100일 작정 부흥회가 시작되었고 김은석은 금식을 하며 부흥회를 이끌었다. 그 당시 오데골교회는 초가 한옥으로 15-20명 가량이 앉으면 적당한 교회였고 성령이라는 말은 듣지도 못했던

27) 목포그리스도의교회, op. cit., p304

28) 조동호, op. cit., p138

시절이었지만 부흥회가 시작되자 소문이 나서 70여명이 첫날부터 참석하게 되었다. 부흥회 4일째 되던 날 철야기도를 하던 중 새벽 4시경에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세례 사건이 나타났다. 저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황 집사라는 분은 문고리를 잡은 채 성령의 불을 받아 입신하기까지 했다. 또한 그 새벽 성령의 불이 타는 것을 보고 경찰서에서 쫓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일순간에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기뻐 뛰며 찬송을 부르는데 그 소리가 평상시와는 너무나도 달랐다.²⁹⁾

모두들 눈물의 회개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였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온 교인이 불이 붙은 가운데 김은석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선포하였고 선포하는 그의 몸에서는 광채가 발하였다. 참석한 모든 성도가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 당시 김은석을 통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김규상은 증언하고 있다.³⁰⁾

성령의 강한 역사는 교회를 부흥시켜 5-6명 모이던 교회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1년도 안되어 100여명으로 늘었고 황골과 녹골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또한 온 인근 지역으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청주노회로부터 자제하라는 두 세 차례의 명령이 김은석에게 전달되었으나 그는 자신의 부흥운동이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 믿었기 때문에 부흥사역을 지속하였으며 결국 노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게 되었다.³¹⁾

김은석이 청주노회로부터 제명을 받아 오갈 데가 없게 되자 이미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한 교인들은 그 당시 이복출 집사의 집 대청마루로 예배처를 옮겼다. 이처럼 대청마루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나 성도들은 김은석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셨으며 이러한 모습은 이웃교회들에 모범이 되었다.

29) 목포그리스도의교회, op. cit., p305-307

30) 김홍철, op. cit., p83

31) 조동호, op. cit., p138

이 무렵 정찬성, 김명석, 최요한, 장주열, 신현창 등이 김은석을 도와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 몇 달 되지 않아 교인들이 몰려들어 교회 건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누구도 사지 않아 폐허로 버려져 있는 15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하고 그 땅위에 김은석과 함께 장로교회에서 나온 김교인 장로, 오연우 장로가 온 교회 교우들의 뜻을 모아 60평의 교회를 건축하였다.

건축 후 교회 이름을 짓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김은석은 정찬성의 제안을 받아드려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대로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로 명명하였다. 이는 김은석이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당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이며 충청 이남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보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김은석이 서울 북아현동 자택에 갔다가 서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성낙소와 최상현을 서울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만난 시기는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부설 <신화신학> 성서연구원을 초창기에 운영한 이후의 사실임도 간접적으로 입증하게 된다.³²⁾

김은석은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금지시하는 침례를 베풀었고, 주일예배 때 성만찬 예배를 드렸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은 100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충청 이남의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당시 전국에 있는 교회에 열심 있는 성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법도, 규칙도, 머리도, 꼬리도 없이 그냥 모여서 그냥 듣고 보고 배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거리에 나가거나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며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와보라고 할 때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각종 병자가 모이고 미친 사람들이 와서 예수 이름 듣고 놀래서 단숨에 도망을 치다가 신탄진 강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었고, 거품을 흘리며 뒹굴며 은혜 받고 춤추다가 옷이 벗어진 사람도 있었다. 설교를 듣다가 너무나 기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찬송이 나오고, 결국에는 설교자나 듣는 이가 자연스럽게 합창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 하시면 무릎을 꿇은 채로 30-40cm까지 뛰기도 하였다. 얼마나 뛰었는지 결국 마루 장까지 꺼졌다 한다. 그러다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부

32)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op. cit., 308-309

강 장날 거리를 급히 오고 가면서 외치기를 “이 썩은 보리찬밥 덩어리들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생명떡으로 배불림을 받고 쉼을 받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외쳤다.

김은석의 설교는 열변이 아니고 조용한 강의식이었다. 신구약 성경을 오가면서 구약에서 물으면 신약에서 답을 하고 신약에서 물으면 구약에서 답이 나오는데 정확하고 일반적으로 아는 답보다 훨씬 새로웠다. 그래서 듣는 이가 무릎을 치며 기뻐하고 감사하곤 했다. 그는 어느 성경학자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었다. 어느 산이든 풀밭이든 앉으면 그 자리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쉬고 먹는 시간외에는 성경을 보고 찾는데, 그의 성경은 걸레 쪽같이 낡고 찢어져 있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존경하고 그에게 모여 들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엄격히 가르친 것은 동참죄와 우상타과였다. 그리고 세례, 성찬을 왜곡하는 자들은 구원받기 어렵다며 기성교회 목회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³³⁾

1951년 늦은 가을에 김은석은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름으로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개척했으나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타 교회 부흥회와 순회목회를 하며 순수 복음전파에 전념하였다.³⁴⁾

3. 신화신학과 제자 양육

부장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축한 이후 충청 이남에서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고 본인 스스로도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김은석은 힐 요한 선교사가 서울 송월동에 세운 연경원이라 부른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으나 성령론에 뜻이 맞지 않아 학업을 중단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신현창과 협력하여 ‘경천학’이라는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매일 성경공부와 별곡 찬송, 그리고 한글을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다. ³⁵⁾

33) 지철희 「김은석과 부강교회 집회들에 관한 회고」, <http://kccs.pe.kr/xianch28.htm>

34) 목포그리스도의교회, op. cit., p308-309

35) 조동호, op. cit., p138

그 후 ‘경천학’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의 장이란 의미의 ‘신화신학’으로 개명했다. 날이 갈수록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화신학’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갖게 되었고 이곳에서 공부한 사람들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음으로서 교파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건드릴 수 없는 소명감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났다.³⁶⁾

당시 부강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외에 장로교회와 성결교회가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흥을 못마땅하게 여겨 김은석을 시기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대한청년회 단장을 맡고 있던 모 교회 목사가 김은석을 음해하여 쫓아내려 하다가 여의치 않자 감찰실 요원 2명을 매수하여 그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행방불명이 된 김은석은 맞아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되었고 집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 회복이 되자마자 전도 가방을 들고 전도를 하러 찾아간 곳이 자기를 구타한 사람이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자 그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 놓으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다는 일화도 있다.³⁷⁾

이 후 ‘신화신학 성경연구회’가 원근의 교회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가졌다. 또 여기서 은혜 받은 다른 교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했고 각자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 이런 은혜를 소개하고 김은석 일행을 초청하여 특별집회를 가짐으로 그 교회 전체가 이 새롭고 순수한 신약 성경적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전개 되었다.³⁸⁾

1950년 6·25 동란으로 김은석이 운영하던 ‘신화신학’ 성경연구원은 전라도 광주에서 힐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울 필운동 교회에서 시작했던 그리스도의 교회 성서학원 혹은 한국 기독교 성서신학교(후에 서울기독교 신학)와 합해져서 운영되다가 1954년 최요한이 시무하던 목포 유달 교회에서 1년간 운영되기도 하였다.³⁹⁾

서울 수복 후에 김은석은 다시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한 환원운동을 계속하

36)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op. cit., p310

37) 김홍철, op. cit., p85

38) Ibid., 85

39) 목포그리스도의교회, op. cit., p310

여 여러 교회들의 환원을 도왔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충북에 수리, 수룡, 노은, 탁동, 소태, 의진, 반능, 방서리, 부강, 황청, 양촌, 문암, 송정, 남주동, 영운동, 가좌, 충주 교회 등이고 충남에 연산, 황골, 녹골, 충곡리, 신탄진, 대전 등 20개가 넘는다. 기타 전남 지방에 개척한 교회까지를 합치면 김은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된 교회들이 무려 80여 개에 이른다.⁴⁰⁾

1946-1955년 초까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던 목회자들로는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심영진, 박점상, 김규상, 이원로, 김정만, 함창현, 김동렬 등이 있다. 이밖에 김교인의 아들 김태수, 김철수, 김명석의 아들이자 김은석의 수양아들 김성철 등이 부강교회 출신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이며, 이신도 6·25때 광주에서 김은석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다. 이처럼 많은 인재들이 김은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여 목회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⁴¹⁾

김은석의 ‘신화신학’은 1955년까지 계속 초창기 한국 환원운동의 기수들을 양육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부분이 이곳 출신들이 펼친 환원운동에 의해 개척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⁴²⁾

하나님의 사람 김은석은 이 땅에 소리 없이 왔다가 60평생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다가길 원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흔적은 그 어떤 것도 남기기를 거부하여 사진 한 장 찍어 두기를 허락지 않아 그의 문서적 기록이나 유품은 남긴 것이 없다.⁴³⁾

이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회들을 환원시키며 왕성한 활동을 하던 김은석은 1963년 초 충남 여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⁴⁴⁾

40) 김홍철, op. cit., p86

41) Ibid.,p139

42) 조동호, op. cit., p88

43) 목포그리스도의교회, op. cit., p301

44) 조동호, op. cit., p138

III. 김은석의 신학사상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은석은 체계적인 학문을 통해 성경을 연구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다독하며 성령의 영감을 통해 체득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학사상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후, 힐 요한 선교에 의해 서울 송월동에 세워진 연경원이라는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수학하던 김은석이 오직 성령론에 뜻이 맞지 않아 학업을 중단하고 본인 스스로 ‘신화신학 성경 연구원’을 열어 제자들을 양육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신학사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제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그 범위를 오직 성령론에 국한하여, 선교사들에 의해 도입된 미국내 초기 환원운동자들의 성령론과 김은석의 성령론을 비교,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그러나 김은석의 신학사상에 관계된 어떠한 문헌자료와 기록의 부재에 기인하여 김은석의 성령론은 ‘신화신학 성경연구원’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그들의 성령운동을 체계화한 이신 박사의 성령론으로 대체하여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미국내 초기 환원운동자들의 성령론

알렉산더 캠블의 성령론에 대한 해석은 그의 중심 저서인 *Christian System*⁴⁵⁾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환원 운동의 교리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학교가 그 저서를 성서의 심오함 가르침을 위한 참고서로만 사용하는 이유는, 성서만이 믿음의 절대적 권위서라는 주장 때문이다. 이 책은 성서의 전체 교리가 수록된 매우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⁶⁾ 이 책을 통해 밝힌 성령에 관한 알렉산더 캠블의 견해를 요약, 정리해 보면:

· 인류를 위한 죄사함의 제물로 어린 양을 주시었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한 죄의 사함을 이루셨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45) Alexander Campbell. *The Christian System*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mpany, 1939)

46) 권인원, 「그리스도의 교회(환원운동사편)」(문연사, 1995), p124

· 생명의 빛인 성서를 은사로 주셨다. 예수께서 그의 정성을 쏟아 기록하신 말씀이다.

· 이상의 사실을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그의 안에 거하기 위해) 침수로 세례를 받는다. 그를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시인하여 그의 인도에 우리 것을 맡긴다. 그는 그의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어 우리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택함 받도록 도우신다. 성령은, 예수 그리고 성서 다음으로 주신 셋째 은사이다. 성령을 하나님의 모든 사업의 완성이라 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었고 권능의 영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었다”는 말씀에서 그의 영이 하늘을 장식하고 은하수를 만들어 마지막 마무리 일을 끝마쳤다는 뜻이다. 성령이 예수께 임하셨고 사도들은 그의 뜻대로 여러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 예수를 증거했다. 진리와 보호자의 영이 사람들로 그들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한다. 성령은 그들이 예수를 죽인 죄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계시하셨고 성령을 통해 그가 의롭다고 주장하셨다. 성령은 또 신약서의 모든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도록 했고, 기적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영감의 말씀과 성령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다. 성령은 오순절 강림하신 이래 공식적으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았다. 그가 돌아가지 않으신 이유는 주님의 교회에 새로운 생명으로 활기와 영감을 주시기 위함이다. “너희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하시어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했고, “죽은 자에게 예수를 살리신 그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거하는 성령에 의해 죽을 몸을 소생시킨다”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다.⁴⁷⁾

알렉산더 캠블의 성령론은 성령의 기능과 역사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부정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Christian Baptist지에 성령에 관한 글을 몇 회에 걸쳐 게재했다. 그는 성령에 대한 분명한 성서의 교리를 제시하며, 인간의 추측과 상상을 통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리는 계시가 성령의 역사로서, 기적이거나 예언과 같은 초자연적 은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활동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성령을

47)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s Only*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1975), p.70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나타남이, 사도시대에 한정 되고 당시의 성인들의 활동에 속하고 선의 영으로서 그 영향력이 모든 초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인식되고 체험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령이 그의 사업을 도와 성공케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원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성령 은사의 실체는 언약의 진실한 보장과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생활의 결실의 근원이라고 했다.⁴⁸⁾

그는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한 방법에 대해 견해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점진적으로 특별하게 역사한 성령의 영향력에 대한 여러 증거들을 인정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육신에 하나님의 영향력의 역사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오해됐다. 그와 같은 견해는, 많은 사실에 모순되고 나타난 많은 계시에 위배되며 그리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을 깨뜨리고 기도를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행위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확신을 앗아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개념을 무시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1825년 Christian Baptist지 4월호의 그의 성령에 대한 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행해진다고 주장함은 잘못이라 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능력을 빼앗아 성령으로 대신한다면, 인간은 창조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힘과 능력을 박탈당하여 모든 인간 활동이 바람에 의한 파도처럼 무력한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성령론의 핵심적 가르침은 개종에서 성령 역사의 부정이다. 그는 그 증거로 부흥회의 아름답지 못한 감정의 호소와 그리스도를 믿기 거부하는 지식인들의 책임을 들었다. 그가 성령에 대해 유명한 공개 토론을 가지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중생과 씻음의 도구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생명과 권능을 부여하셔서 그 말씀이 영혼에 역사한다 했다. 그것은 기독교만의 특별한 축복의 진리로, 사도들이 직접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썩을 씨로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⁴⁹⁾

48) 이 주장으로 그가 성령 역사를 부정한다는 오해를 받음

그러나 그는 논쟁자의 주장을 반박하며 “나는 성령에 대한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지 않고 옛 학설에도 만족하지 않으며, 현재의 학설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학설이나 이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종교를 학문으로 간주한다면 학설의 추정이 가능하다. 성령과 관계가 없는 종교는 성령을 위한 기도가 필요 없고 성령의 내주와 화평의 기쁨이 없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세계를 전파했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총과 성령의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심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다.

그는 장로교회의 목사들이 머릿속에는 성서의 지식이 풍부하지만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음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강요하여 지와 정의 균형된 믿음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⁵⁰⁾

알렉산더 캠블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도들의 권능과 기적이 역사의 기록처럼 성령이 말씀과 함께 함으로 인해 권능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이 하였고, 성령이 사람들을 믿도록 하신 사업을 말씀도 행했다. 그는 이론적 또는 추론적 성령론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을 가르치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은사는 아니다. 오직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을 위한 은사이다. 성령을 믿는 자가 영생을 위해 힘든 수고를 할 때, 그는 권능으로 실지로 돕고 인도하신다고 했다. 그가 처음에 성령의 역사를 성화보다 개종을 위한 은사로 설명한 것은, 개종이 성화보다 더 힘든 사업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이 오류인 이유는 실제의 경우, 가령 곡식을 심은 일보다 잘 가꾸어 결실을 거두는 일이 더 어렵고, 군에 입대하는 일보다 훌륭한 군인이 되는 일이 더 어렵고, 마라톤 출발보다 완주하는 일이 더 어렵고, 결혼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개종보다 성화가 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이다.

믿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는 명령의 순종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어서, 침

49) Robert Richardson, *Memoir of Alexander Campbell*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1897) p152

50) 권인권, op. cit., p124

수 세례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운동장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은 그가 시인하신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기를 구하나 적은 수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하셨다.

구원받은 자가 불신앙의 전례를 밟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되는 일은 어렵다. 성화는 한 점진적 결과이다. 그것은 거룩함과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한다. 침수세례로 구별과 거룩이 시작하고 거룩함은 상태, 인격, 성품, 그리고 행동에서 자라고 존재한다.⁵¹⁾

거룩한 인격과 성품의 형성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진리로 성화하신 것처럼 육신과 영혼이 흠 없이 깨끗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과 성화를 구해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다 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성화를 완성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고 그 일에는 도움이 요구되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모든 거룩함의 창조자이시기에,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고 했다.

그와 같이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창조자로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영적 피조물인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와 교인들을 그의 말씀, 그 자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의 권능과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인은 소생하고 용기 있고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것은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신다. 그의 셋째 은사인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모든 시험과 싸워 궁극적 승리가 불가능하다. 성령을 선물로 주심은 그의 선한 교통을 위함이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선함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교통이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의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신다.

알렉산더 캠블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승리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 말씀과 진리로 역사하신다고 했다.

51) Ibid., p126

믿음과 말씀과 관계없이 성령을 받으라는 요청은 비성서적이라 했다. 개종보다 성화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것은, 침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주시어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순종의 의무를 다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필연적 은사라고 했다.⁵²⁾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기본 교리를 다루고 있는 크리스천 독트린(Christian doctrine)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약성경에는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에 대해서 두 번 기록되어 있다. 사도들은 오순절 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행 2:12-4). 이 경우 강한 소리와 더불어 사도들 위에 내린 불꽃으로 집안에 가득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다른 나라 말들을 할 수 있었고 기적적인 사역들을 행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침례를 기록한 글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관한 것이었다(행 10:44). 그 경우는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행 10:47; 11:1-18). 그것은 그들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가져다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good 15:9; 11:18; 10:47-48), 물침례를 대신하지도 않았다(행 10:47-48). 그것은 오순절 날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침례에 관련이 있다(행 11:15).⁵³⁾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을 서로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많은 혼란과 분열이 발생되고 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방언 말함의 사건은 오순절 날에 있었던 사도들의 것이었다(행 2:1-12). 이것들은 다른 방언들, 또는 알려지지 않았던 방언들로 불린다. 성경을 더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들이 전에 사용해 본적이 없는 언어들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들 언어들 은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많은 지역들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행 2:8). 그것들은 말하는 자들이 모르고 하는 언어들이었지만,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들이었다. 다음으로 언급된 사건은 고넬료 가정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방언을 말했던 사건이었다(행 10:46). 베드로는 오순절

52) Ibid., p127

53) The Central Africa Mission Evangelistic Literature Service, *Christian Doctrine: A Book of Basic Beliefs*(Cincinnati, OH: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1988), p 13-16

날에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것에 그 사건을 비교하였다(행 10:47).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말한 방언들 역시 말하는 자들이 모르고 하는 언어들이었지만, 듣는 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들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 사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에게 침례를 베푼 후 안수하였을 때에 발생하였다(행 19:6).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세 가지 사건들 사이에 어떤 구별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질서 있는 예배와 적절한 행동(고전 14:39)을 위해서 바울은 방언 말함을 금하지 않았으나(고전 14:39) 공중 예배 때에 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는 방언 말함을 미숙한 것(고전 13:11)으로 보았고, 대중에게 말하는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전 14:19)고 제안하였다. 방언 말함은 교회에서 누가 더 신령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잣대로 결코 주어지지 않았고, 그와 같은 잣대로써 방언 말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울은 말하기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고전 14:22)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활동이지, 말하는 사람의 선함이나 능력이 아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는 더 높은 영적 권세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삼상 3:20), 바알과 다른 거짓 신들의 선지자들(왕상 18:19), 그리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막 13:22)에 관해서 읽게 된다. 선지자는 미래에 관해서 말할지도 모르나, 종종 과거와 현재에 관해서 말한다(삼상 15:10-34; 삼하 12:1-10). 그가 말하는 것은 근원에 따라서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만일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이고, 만일 그것이 거짓 신에게 온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이다.

초대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엡 4:11; 행 11:27; 13:1). 또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벧후 2:1; 요일 4:1; 살후 2:2). 초대교회 당시 신약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못했었고, 따라서 사람들이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와 사도들의 말씀들을 연구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남성과 여성들은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었다(행 21:8-9). 그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들을 받았다.

사도들은 교회가 예언의 은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 예언의 은사는 한 몸 교회를 이루는 많은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다(롬 12:4-6; 고전 12:10).
- 예언의 은사는 언젠가 그칠 것이었다(고전 13:8).
- 예언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만큼 크지 않았다(고전 3:2).
- 예언의 은사는 방언 말함보다 더 많이 사모해야 할 은사였다(고전 14:1,5).
- 예언은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전 14:3).
- 예언은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은사가 선지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은사를 통제하기 때문이다(고전 14:32-33)
- 선지자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 있어야 한다(고전 14:29). 이것은 예언자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언자의 말을 테스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살전 5:19-21; 요일 4:1).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시기적으로 한정된 은사였다고 믿으며,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구입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쳤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람들은 신약성경을 통해서 진리 즉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은사는 질병이나 가족문제 또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과 가르침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예수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으며(눅 4:40-44), 마지막에는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다(요 3:14-17). 사도들의 기적은 종종 “표적”(행 2:43)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권세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확신하였다(행 3:12-13).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빌 2:25-28; 고후 12:7-9; 딤후 5:23). 하나님의 목적들에 부합될 때에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었다. 사도행전 28장 1-10절에서 우리는 말타섬에 있는 바울과 누가와 다른 동역자들을 보게 된다. 8절에서 바울이 한 남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적으로 그를 고치

는 것을 보게 된다. 9절에서는 그 밖의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그들이 의학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초대 교회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는 신유은사였다(고전 12:9). 우리는 이 은사를 “즉시” 고침 받는 것을 뜻하는 기적에 의해서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상 간주한다. 또 장로들은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약 5:14-15). 그러나 치유를 일으킨 것은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치유하신다. 우리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않으신다면, 무슨 이유로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는가? 만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의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치유를 기적으로 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54)

2. 신화신학의 성령론

이신은 해석학적인 개념에서 성령론을 풀어나가고 있다. 그는 ‘카리스마적 신학’⁵⁵⁾이란 글을 통해서 이전의 해석학이란 성경의 어구를 하나둘씩 풀어서 해석하는 것, 곧 성경주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어느 시점부터 성경의 말씀을 현재의 구체적인 실존과 관련시켜 인간을 근본적인 언어의 현실로 보고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의 매개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역사적 사건으로 강조하여 사건화 된 언어의 역동성을 포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역설하며, 사람이 언어를 소유했다기 보다 인간이 ‘말씀’에 의해서 인간이 되었고 또한 구원을 받은 것임을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먼저이며 ‘말씀’에 의해서 인간이 된 것으로, 인간이 언어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또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의 매개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54) Ibid, p17-23

55) 이은선, 「이신의 슬리어리즘과 영의 신학」 (종로서적, 1992), p191

1980년(소천하기 1년 전)에 옛 동료였던 ‘하나님의 성회’의 한 목사님을 통해 ‘순복음 신학교’ 교회 청년 선교지 「카리스마」에 연재한 글. 평상시 이상의 시를 좋아했던 저자는 말년에 이르러 자동 기술법인 시작법의 문체를 통해 의식의 흐름을 따라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적어 나간 이러한 글들을 발표하였는데, 「카리스마」지에 실린 연재물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⁶⁾

그는 ‘말씀’을 단순히 규리적 구실을 하는 것으로 또는 의사전달의 매개체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행위에 주목하며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행위’를 이해하는 동시에 성경의 메시지를 ‘예수의 행위’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예수의 행위’는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단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결단이 촉구되는 것이며 ‘예수의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로써 이 특이한 ‘하나님의 행위’를 그 당대 주변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상황에 의해서 설명하려 하기에는 너무나 특이한 절대적이며 결정적인 사건으로서 그런 주변의 역사적 요인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⁵⁷⁾

그는 또한 우리의 의식 상태가 너무나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덤벼드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 비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 자신이 해석 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4:12-13)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들 자신의 실존상태를 속속들이 심판받고 쪼개어 얼마나 죄악되고 무지하며 어리석은 존재인가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⁵⁸⁾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관점을 들어서 논하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성령의 시대적 경륜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즉 말씀의 역사적 사건화에서부터 영화의 시대로 역사적 예수가 이제는 영

56) Ibid., p191

57) Ibid., p192-193

58) Ibid., p194-195

화로운 그리스도(성령을 받으심)이시며 참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셨으므로(영원 전부터 그러하시지만) 이제는 말씀해석도 로고스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중심적인 면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모든 문제가 해석학적인데 있다고 하며 특히 신앙의 문제가 가장 그러하다고 역설한다. 즉 신앙의 문제에 있어 해석학적인 문제로 Interpretation(설명, 해석)이란 말 자체가 말하듯이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Messenger(전달자)의 소관으로서 이것은 신의 전달 없이는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반드시 계시적인 것, 영적인 것이나 지금까지 그것을 인간의 처지대로만 말하고 인간의 이해의 정도에만 맞추어서 풀어보려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해석은 커녕 더욱더 난해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학상의 문제는 논리적 해명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실존적인 자리의 문제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뜨이는”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학습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느 시기에 가서 확 눈이 뜨이는 그런 경험과 같고 옛날 글 읽는 선비들이 말하듯이 ‘문리가 터지는’ 그런 경험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곁에 예수님이 동반하신 줄을 모르고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 받아먹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본 것 같이 ‘눈이 밝아지는’ 실존적인 문제가 바로 해석학의 문제이며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서 해석학은 ‘카리스마적(은사)’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⁵⁹⁾

여기서 ‘영적’이라 함은 구체적인 것을 대신하는 추상적인 것, 원리적인 것으로 이해한다거나 현실적인 것 대신에 이념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성서주해자들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은유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초현실적인 성서의 기사를 어떤 신학적인 이념을 꼬집어내는데 필요한 텍스트처럼 주해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성서의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결단을 회피하는 두리뭉실한 무인격적인 신학적 이데올로기화하는 작업이라 비판하고 있다. 영적인 것은 보다 인간적인 말씀인 것이며 또한 구체적인 응답이 필요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우리를 인격의 중심에서 결단을 올바르게 내리도록 하시며 ‘사람됨’을 조성하는

59) Ibid., p195-196

근원적인 힘이다.⁶⁰⁾

성경의 기록자들(모세, 이사야, 다니엘, 마태, 요한, 바울 등)은 다 2차적인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 그 원저자의 말을 들어야 하며 원저자는 바로 성령으로서 그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즉 성경에서 추상적인 원리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인격적인 목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책임이 따르기도 하며 더 나가서 인격의 전면적인 해방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많으며 초현실적인 일이 나타난다. 성령의 목소리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목소리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사 6:9)는 말씀대로 단순히 언어의 몰이해로 생기는 현상이 아닌 더 실존적인 영적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학습적인 노력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이 세상의 “잘난 사람들의 지혜”나 “이 세대의 지혜”(고전 2:6)도 아닌 반드시 위에서부터 주시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카리스마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해석하며 어떤 완결되고 고정된 원리를 다루는 것이라든지 또는 추상화한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어떤 객체를 다루듯이 마음대로 갖고 놓고 이리저리 치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상관관계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하며 진리의 인격을 깨닫게 하자는 것으로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다.⁶¹⁾

성령을 통한 카리스마적 말씀 해석은 죄와 사탄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오도록 하시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일이며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들의 무지함과 우리들의 무능함과 우리들의 의식의 더러워짐과 우리들의 그릇된 가치관과 우리들의 왜곡된 정의감과 비참함을 해부 받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근청함으로 그 빛에 의해서 진리의 진면목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⁶²⁾

60) Ibid., p196-197

61) Ibid., p198-202

62) Ibid., p203

그는 성령에 대해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알게 하는 분이
 며 하나님의 인격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다.
 성령은 어디나 편재하고 계시며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의식한다’
 라는 말로서 환언하면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심을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속에 새로운 의식 의문이 열린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속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
 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비둘
 기처럼 표상하기도 하지만 사실 ‘뜨거워지는 것’, 또 ‘시원한 것’ 또는 어떤
 ‘표상의 나타남’ 자체가 성령 받는 본질적인 경험이 될 수 없고 성령이 인격적
 인 하나님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인
 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격적인 만남은 대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왕상 19:9-14). 성령을 받는 것의 특징은 바람과 같은 것의 체험, 불의 체
 험, 또는 어떤 표상화된 것의 체험이 아닌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 인격적 변화
 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며 그것은 적은 일에도 두려워하던 자들이 변하여 담
 대해지며, 모든 일에 염려하던 자가 변하여 모든 일을 기도드리면서 전능자를
 믿는 가운데서 안심하고, 남을 미워하던 자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며 자
 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살아가는 전면
 적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환언하면 인격적 변화의 경험 그것이 참다운
 의미에 있어서의 성령 받음이요 성령의 체험인 것이며 만일 이런 인격적 변화
 가 없는 성령의 체험은 인격적인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인격적 또는 반
 인격적인 잡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
 님의 말씀을 받는 경험을 동반하며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인격적 결
 단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가리키며 이것은 나의 결단이 아닌 진리의 성령의
 결단이요 허위 결단이 믿음직한 신앙적 결단이 되는 경험이다. 물론 거기에는
 뜨거움도, 시원함도, 어떤 표상화의 경험도 따를 것이나. 이것은 성령 경험
 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⁶³⁾라고 언급하고 있다.

63) Ibid., p204-210

3. 성령론의 비교,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내 초기 환원운동자들 가운데는 영국의 계몽주의 철학자의 한 사람인 존 로크(John Locke)의 영향 하에서 “말씀과 논의 이외에 신자들 속에 실제적으로 성령의 내적 임재를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인도하심이나 기도의 효능 등을 부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실 미국의 환원운동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성서적 근거에서 그 순수성과 단일성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교회의 초대 교회의 원형으로의 환원을 부르짖은 데는 공헌했으나, 역시 기독교 신앙의 영감적인 면이나 성령으로 인한 현재적인 역사 등에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미국 환원운동자들이 성서의 자구적 해석을 고집한 나머지 메마른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적 신앙에 기울어져 있는데, 그 한 예로 앞에서 언급된 기사, 이적이나 성령 세례는 사도시대에 국한되는 것이지 오늘날은 종식된 것으로 믿는다는 것과 세례나 성만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그 예전 자체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 인양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내고 있다.⁶⁴⁾

이처럼 오순절 성령 세례의 단회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중생을 곧 성령 세례로 보는 신학 체계에 서 있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아 세기적인 사건이요, 유일한 사건으로 반복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이사랴, 사마리아, 에베소 등지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들은 모두 오순절의 성령 세례의 범위의 확장이요, 성령의 통치의 확장으로, 혹은 독특하고, 반복 불가능한 사건 복합체의 일부라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⁶⁵⁾ 성령 세례의 단회성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동일한 수원지에서 수도관을 통해 공급된 물이 옛 도시에서 새도시로 유출되는 것과 같이, 오순절에 단 한번 교회에 임한 성령도 처음에는 교회의 이스라엘 부분만 공급되었으나 결국 그 성령의 흐름이 교회의 다른 부분인 이방인 세계에도 쏟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교회 전체가 마시게 되었다”라 주장하였다.⁶⁶⁾ 이것을 ‘카

64) 조동호, op. cit., p92-93

65) 안영복, 「성령론의 바른 이해」(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p58-59

66) Abraham Kuyper, 「성령론」 김해연 역 (세종문화사, 1988), p217-224

이퍼의 유출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한 마디로 '저수지의 비유'라고 불리운다. 성령이 오순절에 소낙비같이 쏟아 부어져 저수지에 저장되었다가 각 가정에 수도 파이프를 연결되어 소량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며 여기서 비유된 저수지란 '신비로운 몸', 곧 교회를 의미한다.⁶⁷⁾

그러나 이러한 미국내 초기 환원운동가들의 성령론은 김은석과 이신, 즉 신화학의 성령론과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김은석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 성경 말씀을 체득하였기 때문에 그의 성령론은 체험과 영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사, 즉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학문의 연구로 깨달아 질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성령 세례는 오순절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들의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를 통한 것이 아닌 수많은 부흥 집회를 가지며 그들 스스로 보고 경험한 놀라운 감동과 역사적인 경험에 의한 것들이다.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성령운동을 주도해 나간 몇 명 안되는 인물 중의 하나가 바로 김은석이다. 당시 부강을 중심으로 충청 이남으로 번져나간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초대 오순절의 성령 세례가 재현되었다고 회상하며 증언하고 있다.

오순절 성령 세례의 단회성의 주장에 대해 영속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 오순절 성령이 그때의 성도들로부터 영원히 떠나시지 않기 때문(요 14:16)에 다른 성도에게는 다시 오실 수밖에 없다.

· 성령에 관한 약속의 보편성이, 성도의 개개인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성령의 강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오순절 성령 강림은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은 사실이나, 단회적으로 단번에 완성시킨 구속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에 속하므로 대표의 원리가 적용되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재림 때까지 전부 구원의 서정에 속한다.

·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은 사도들에게 하

67) 강석중, 「성령세례는 오순절로 끝나지 않았다」(은혜출판사, 2006), p292

신 말씀으로 이미 성취되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땅 끝”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은 확실히 오늘날에도 계속하여 위로부터 권능의 성령이 임할 것을 미리 내다 보시고 하신 말씀이다.

- 성령 충만의 보편적 성격이 오순절 강림과 같은 동질의 성령이 계속 오셔야 함을 증거한다.(요 7:38, 고전 12:13, 계 22:17)

-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요 15:6)는 교리가 있음은, 성령 강림의 영속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 성령이 부어질 기간이 “말세”의 기간이기 때문이다(골 2:28, 행 1:17).

-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일을 계속하시기 때문이다(요 1:33).⁶⁸⁾

- 사역론적 차원에서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적이다. 오순절 성령강림은 실패와 낙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신 사건이다. 신약성경을 통해 이러한 성령의 능력적 강림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성경 인물들이 위로부터의 충만을 체험했다. 신약성경에도 이러한 능력적 강림을 예언하셨다. “볼찌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눅 24:49) 말씀하셨고, 오순절 날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사역이 계속되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행 4:8, 31). 이런 사역론적 차원에서 볼 때 오순절은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사도행전과 교회가 이를 증명한다.⁶⁹⁾

- 목적론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강림은 계속적 반복적 강림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강림의 목적은 전도요, 선교다. 전도, 설교, 선교의 모든 행위가 성령의 능력적 강림이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다. 전도와 증거의 사역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임재하셨다.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의 말씀이 이루어 질 때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68) 차영배, 「오순절 성령강림의 단회성과 영속성」(총신대학신학대학원, 1983), p13-21

69) 정원태, 「열정 칼빈주의」(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p50

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따라 강림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다.⁷⁰⁾

물론 미국 내 초기 환원운동가들 모두가 알렉산더 캄블이 주장한 것과 같은 성령론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윌터 스콧은 그가 창간한 종교지(The Evangelical)의 컬럼란을 통해 성령에 대한 그의 연구를 발표하였다.⁷¹⁾ 그가 성령에 관한 논문을 그의 종교지에 게재한 동기는, 개혁자들이 기독교를 전적으로 추상적 신앙 체계로 만들어 신앙인들의 실질적 성령의 내주를 부정하고 기도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여야 할 효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개혁자들의 성령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부흥집회의 무질서한 소란에 대한 극단적 반작용에 연유했다.⁷²⁾

스콧은 성령에 대해 하나님의 세 가지 역할을 통해 기독교가 발전과 성장을 유지했다고 했다. 그 세 가지 역할이란 주 예수의 성역, 사도들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 했다. 그리스도의 성역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의 사업이었고, 사도들의 사역은 세계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업이었으며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성령께서 오순절 세상에 임하시어 죄악의 세상과 의의 세상을 분명히 구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의 영원한 합침에 대한 확신을 위해 그들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령의 사명은 교회를 위해 교회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령은 세상의 끝 날까지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어 선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가 오순절과 그 후에 행하신대로 지금도 선한 것을 역사하신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⁷³⁾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 여러 환원운동가 사이에서 환영받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성령론은 김은석의 신화신학과 같은 맥락에서 성령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70) Ibid., p50-51

71) Don Basham, *The Holy Spirit* (Pittsburgh: Whitaker House, 1980), p.57

72) James Deforest Murch, op. cit., p105

73) 김익진, op. cit., p160

은사 및 이적과 기사에 대한 미국내 초기 환원운동가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시기적으로 한정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김은석과 신화신학자들은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있다. 즉 모든 은사(카리스마)는 성령의 주권적 의지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많은 은사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중생시에,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으로 보며, 이런 은사들이 역사하는 것은 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며 이것은 시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은석과 신화신학의 주장은 오순절교회와 신오순절교회의 그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오순절과 신오순절교회의 특징은 기적, 방언, 신유 등과 같이 보이는 성령의 은사를 중요시 하고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인이 된 후 구해야 하는 한 체험으로 믿으며 감정과 정서에 대한 그들의 지나친 강조는 그들로 하여금 극단적 주장을 하도록 한다.⁷⁴⁾ 국내 순복음 교회 가운데는 방언의 체험을 구원의 필수요건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김은석과 신화신학의 주장은 이신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성령 체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며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신비로운 체험(은사들)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성령 체험의 본질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신비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74) Ibid, p344

IV. 김은석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1. 교회사적 의의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한국에 들어온 카톨릭 교회의 시작이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한국 학자들이 진리 탐구의 학구열에 의해서 그 관계의 서적을 읽는 중 발견하여 자발적으로 그 교리가 가르치는 대로 실행하다가 그것을 알고 훗날에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교세가 확장되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출발이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고 한국 선각자들의 진리 탐구열에서 주도되었다는 것이다.⁷⁵⁾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은 외국인의 선교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진리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열의와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려는 진실성이 그 선각자들로 하여금 성서적인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을 접하게 했으며, 이들이 이러한 신앙을 이 땅에 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일단 외국의 선교사와 외국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접한 다음부터는 성서해석과 기독교 이해를 무비판적으로 묵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미국의 환원 운동자들의 주장을 아무런 반성 없이 그대로 한국인들에게 도입하기에 힘썼다. 초기 한국 지도자들 가운데는 어느 선교사가 가르친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바른 성서적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교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가르쳤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미국적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런 기독교 이해를 그대로 한국에 이식시키려는 초기의 한국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고 기도 생활에 주력하면서 성령의 영감적인 면을 추구하는 전도자들이 지방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들이 바로 김은석, 신현창을 중심으로 하는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1971년 귀국한 이신 박사가 1973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회장이 되면서

75) 이은선, op. cit., p 263

1974년 3월 25일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언’을 통해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인 개체교회의 독립성 및 성서의 자구적 해석에 기인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적 신앙을 비판하며 “성서적 교회가 그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을 기하는 성서적 조직체가 있어야 할 것”과 “초대 교회에로의 환원은 세례와 성만찬과 교회 이름 등의 외면적인 환원에만 주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특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초대 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방불케 하는 성령 사역을 통해 당시의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한국적 자각을 불러 일으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바로 김은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⁷⁶⁾

그러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생론이나, 선교론이나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분명히 한국 최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신 성낙소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 시점에 대한 기록이 자서전에 정확한 연대와 날짜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최초 세워질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 ‘시점은 인정하나 기념할 수 없다’는 명목하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자생론이 반박당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다. 우리의 역사인 1927년 정월 초라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 시점의 역사를 인정하나 기념할 수는 없고,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 근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1932년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선교 탐색 차 내한 시점과 또는 마이클 쉘리 선교사 부부가 내한 한 때를 한국 교회가 시점으로 기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음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불행이라 생각한다.⁷⁷⁾ 더욱 안타까운 것은 화수리에 세워진 성낙소의 「기독교교회」는 그 소중한 역사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지금은 헐리어 공터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⁷⁸⁾

1945년 세워진 김은석의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 자생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로 볼 수 있다. 교회 건축 후 교회 이름을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

76) 이은선, op. cit., p272-275

77) 오수강, op. cit., p22-23

78) 조동호, op. cit., p166

대로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로 명명하였으며, 당시 김은석은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현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기독교 연합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교역자 수첩에 의하면, 1946년 이전에는 충청 이남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그 당시 전남 함평과 영광 등지에 김은석의 제자인 최요한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1950년대에 접어들어 1956년 충북에 13개, 충남에 6개, 전남에 17개로 도합 36개 교회,⁷⁹⁾ 1964년 충북에 16개, 충남에 19개, 전남에 24개, 전북에 1개로 도합 60개 교회⁸⁰⁾의 교회가 자생적으로 설립되었다. 충청 이남지역에 이토록 많은 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바로 김은석과 그의 신화신학 성경 연구회를 통해 양육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자생적 지도자들이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충청도와 전라도의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원뿌리가 김은석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당시 그가 순회하였던 충청 이남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10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⁸¹⁾

2. 김은석의 환원 동지들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던 목회자들은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심영진, 박점상, 김규상, 이원로, 김정만, 함창현, 김동렬 등이 있다. 이밖에 김태수, 김명석의 아들이자 김은석의 수양아들 김성철, 이신 등 수많은 목회자들이 김은석의 제자로서 그리고 환원의 동지로서 활동하였다.

* 정찬성

충북 반능이 고향인 정찬성 목사는 친구 이학재(감리교 장로)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어 충북 추산 감리교회에 출석하였다. 그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원이었다. 낮에는 편지를 돌리고 저녁에 교회를 다녔는데, 당시 일

79) 「한국 기독교 연합」(한국기독교 협의회, 1957)

80) 「한국 기독교 연합」(한국기독교 협의회, 1965)

81)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op. cit., p324-325

제는 정찬성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잔인무도한 일제의 신사참배에 대한 끈질긴 강요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맞지 않다’하여 가미사마에 대한 요배를 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를 배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리가 부어올라 쓰지 못하게 되었고, 병을 고치기 위한 수소문 끝에 청주 송립 병원을 소개 받아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하여 있는 동안 병원에서 성경책을 주며 읽기를 권하였고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말씀 묵상 중 기도하기를 “내가 여기서 병이 낫게 되면 사도바울과 같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아픈 다리가 낫게 되었고, 후에 김용선 자매와 결혼하였다. 결혼 후 노방전도를 다닐 때 왜경들의 끈질긴 추적이 항상 따라 다녔다. 그는 믿는 사람들(목사들)의 고발로 체포되어 청주 남조동, 대전 신탄진, 충주로 이송되면서 말할 수 없이 참혹한 고문을 당하였다.

출옥 후 처형의 도움으로 만주로 가 복음을 전하였다. 만주에서는 산에서 나무뿌리와 열매로 연명하며 구둔하우시통(구두수리하는 통)을 만들어 왜경의 눈을 피해가며, “모든 사람은 일본 가미사마를 믿지 말고 주 앞에 빨리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했다. 당시 일본인들 중에도 더 전하라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만주 길림성에서 김은석과 만나게 되었다.

해방 후 고향인 반능으로 돌아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연목골이라는 자기 집에서 반능교회로 개척하여 시작하다가 다시 일정 시대 때의 사립학교를 구입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이쯤에 만주에서 만난 적이 있는 김은석과 서신 왕래가 이루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처럼 일하기로 약속하고 부강에서 만났다. 이후 1946년 정초 삼정골에 교회를 개척하고 부강에서 김은석과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시작하였다. 이 때 부강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1948년 충남 대덕 신탄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6.25 동란을 맞는다. 동란 중에 충북 송정으로 피신하였는데 1950년 겨울 북한군에 잡혀 밤새도록 총대로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북한군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놓아주겠다고 했으나 이에 굴복하지 않자 밤새도록 총대로 구타하였다. 아침에 북한군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이동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 총으로 난사하였는데, 당시 정찬성은 기도를 하느라 머리를 들지 않

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덕분에 총알이 치명적인 부위를 살짝 빗나가면서 구사일생하게 되었다. 북한군이 후퇴한 후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 충남 부여를 거쳐 충주에서 환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1954년 소천하였다.⁸²⁾

* 김교인

장로였던 김교인은 김은석을 부강교회로 초빙했던 분으로 충북 청원군 사주면 농촌리 217번지에서 출생하였다. 당시 부친이 술로 가산을 세 번이나 탕진하고 있던 차에 민선교사라는 분이 찾아와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였고, ‘예수를 믿으면 술을 끊을 수 있는가?’라는 부친의 질문과 당연히 ‘끊을 수 있다’는 선교사의 답변이 오고 간 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부친에 의해 세 동생과 함께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나 종가였던 김교인의 가정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중에 의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김교인과 동생들은 금전품을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가게 되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민선교사에 의해 생활비를 받아가며 전도인이 되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오록골에 교회를 세웠고, 사망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1936년 부강으로 이사를 했다. 부강에서 양약방을 개업하여 사업이 번창하였으며, 그곳 오데골에 5~6명 정도 모이는 작은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

1944년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 실의에 빠져 있던 중 참석한 노회를 통해 김은석에 대해 알게 되고 1945년 김은석은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 부임 첫날부터 시작된 부흥집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다. 그러나 부흥회 일로 김은석이 노회로부터 파면을 당하자 김교인은 김은석과 함께 나와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사모인 김정렬은 부강 교회를 다녀간 사람치고 그분의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헌신을 다한 분이였다. 김교인은 1970년 숙환으로 신촌교회에서 소천하였다.⁸³⁾

82) 김홍철, op. cit., p60-62

83) Ibid, p63-64

* 신현창

직업은 의사이며, 상해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일 정 때 고국에 돌아와 이북 철산리에서 병원을 개업하였다. 그가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으며 예수를 믿는 다는 이유로 인해 철산에서 진료를 할 때에 늘 형사들이 와서 감시했다.

신현창은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학비를 지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학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원 일을 지속할 수 없어 청주로 이주하여 이한상 집사가 경영하던 양약방 옆에 병원을 차려 진료하면서 기독교라는 간판을 붙였다. 이후 부강에서 집을 구입하여 이사한 후 병원을 개업하고 그곳에서 김은석을 만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조직하였다. 1945년에 건강상의 문제로 수양 차 충곡리에 왔다가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정철의 집에서 모임을 갖게 하였다. 1950년에는 교회 사택을 지었고 그후 장로로써 또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강사로써 일하였고 1964년 충곡리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하여 있다가 소천하였다.⁸⁴⁾

* 장주열

불교 집안에서 자라난 장주열은 결혼하기 위해 선을 본 처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그녀의 믿음에 감동하여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교회에서 학습, 세례를 받았다.

그는 1946년 1월 전남지방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인도하던 김은석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아 영흥교회 장로를 설득하여 1946년 2월에 영흥교회에서 부흥회를 유치하였다. 그 부흥회에 참석한 100명의 모든 교인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령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다. 일주일 예정의 부흥회를 십 일간 연장되었으며 그 후 그는 최요한(장주열의 손아래 동서, 목사)이 전남 함평 손불면 신흥리에서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할 때 직접 교회당을 지었으며, 부부가 10여 리를 걸어다니며 그 교회를 섬기다 김은석의 수제자가 되어 목사 안수를 받았다. 수지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전도하다가 6·25 동란을 맞는다. 동란 중 아들 장복남이 폭격기에 맞아 위급한 상태였지만 기도하

84) Ibid, p64-65

고 교회당에 뉘어놓고 그 난리 통에도 전도를 다니며 15일이 지나자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그는 살아생전에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순복음교회의 지도자들처럼 1940년대의 성령운동을 전국적으로 주도해 나가지 못했음을 애석해하며, 그 당시 용문산의 나운영과 김은석은 한국내 성령운동의 선두주자들이었다고 증언했다.⁸⁵⁾

청주교회, 수원교회, 홍성 장석리 교회, 안양교회를 거치며 복음을 전하다 숙환으로 1983년 소천하였다.⁸⁶⁾

* 김명석

종가에서 태어난 김명석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20세 때였다. 종가의 종손이었으나 한글을 몰라 글을 배우기 위해 교회를 찾았다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 때 교회에서 얻은 책이 친구약 성경이었고, 열심히 읽다가 조금씩 글을 읽게 되었다.

김명석은 1931년 25세에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광산과 노동판을 전전하였다. 1936년 나이 30세 때인 어느 주일날 아침 일본 산구현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설교를 위해 초청된 김은석을 만나게 되었다.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아 김은석의 손을 꼭 붙잡고 복음의 일을 하겠다고 간청하여 함께 전도를 시작하였다. 점점 교인이 늘어 김명석이 5년 동안 번 돈으로 집을 사서 교회로 사용하였으며 교인은 300여명이 넘게 모였다. 이로 인해 일본 경찰이 김은석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를 잡지 못하자 김명석을 대신 잡아가 김은석의 출처를 캐기 위해 고문하였다. 또한 이때 일본 경찰에 의해 김은석이 보던 모든 책들이 압수당하게 되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위급 소식을 들은 김은석은 귀국하여 부강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김명석도 뒤따라 나와 수리교회를 맡아 목회하면서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던 중에 김은석에게 자녀가 없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 김성철을 12세때 김은석의 양자로 입적시켰다.

85)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op. cit., p315-316

86) 김홍철, op. cit., p66

김명석이 김은석과 함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킨 교회들이 무려 80여 개에 이르렀다. 김명석은 김은석 목사가 침례와 성만찬을 겸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⁸⁷⁾

* 김재순

부강교회 김교인 장로의 아들로 청주 보통학교에 다닐 때에 뇌수술을 받았다. 그로 인해 공부는 하지 못하고 성경공부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도가 싫다고 가출하여 전남 광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김은석 집회를 통해 변화를 받아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해남, 영광, 함평, 광주에서 복음을 전했다.

김재순은 화술가로서 말을 잘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목회자가 없는 곳이 많아 하루에도 두서너 군대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다. 어려서 받은 뇌수술로 몸이 약해진데다 전도를 위해 무리를 했던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비 내리는 어느 추운 겨울 날 어떤 청년의 결혼식 주례가 있어 나를 건너려 하는데, 배가 오지 않았고 수량도 많아 신랑이 김재순을 업고 건너 주례를 마치고 돌아와 쉬는 중에 광주에서 열리는 교역자회의에 꼭 참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몸이 아프고 불편했지만, 그 날도 완장 띠를 두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차 칸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다가 열차 안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소천하였다.⁸⁸⁾

* 최요한

최요한은 장로였던 외조부로부터 신앙을 전수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총각 집사였던 그는 옥중에서 고생하다 나온 사람들이 세운 제건장로교회를 섬기다가 엄단면 영흥교회에서 김은석의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

2년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김은석은 물론, 성낙소, 최상현, 존 힐,

87) Ibid, p66-68

88) Ibid, p68-69

동석기를 알게 되었고, 전남 함평에서 첫 목회를 하였다. 김재순의 부임 시 영광교회를 순회하던 중에 냇가에서 침례를 받았다.

광주교회는 김윤선 집사의 송아지 한 마리로 2층집을 빌려 시작되었고, 최요한, 김은석, 이신, 김재순은 어깨띠를 메고 노방전도에 힘썼다. 그리고 최요한은 이 노방전도 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최요한은 삼월리 집회를 통해서 그곳 교회를 환원시켰고, 장성교회에서 8개월간 전도하며 침례와 성찬의 중요성을 가르쳤으나 변화가 없자 목포로 나와 유달산을 기도처로 삼고 계속해서 환원을 외쳤다. 이 때 광주에서 하나님의 성회 총회가 열렸다. 최요한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령론에 갈등하던 차에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여 복음성회로 옮겼다. 그러나 성찬의 뜻이 맞지 않아 20명을 환원시켜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시 환원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온 지 2개월 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만찬이 생명인 것을 알고 전하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불과 8개월 만에 50여명이 모이게 되어 예배당을 지었다. 그 후 2년이 지나 대지 70평에 130명의 복음교회를 지었는데, 복음교회라는 이름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간판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간판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 교회를 떠났다. 당시 받았던 사례비가 쌀 2가마였는데, 목포에서는 제일 많은 것이었다. 그러나 최요한은 이를 포기하고 나와 40만원에 사택을 구입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였다. 이 사택을 수십 번 개조하여 오늘의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는 동안 비지밥을 2달, 고구마 밥을 10년 동안 먹었다고 한다. 이토록 고생하며 교회를 키우니 목포에 있는 140여개 교회들 가운데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요한은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를 즐겨 불렀다. 성만찬은 교회의 생명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기념설이 아닌 생명설을 주장하였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힘이라 믿었다.⁸⁹⁾

* 김상호

일찍이 기독교에 입문하여 장로교회에서 집사로 섬겼다. 교회에서 성령운

89) Ibid, p69-70

등을 하다가 장벽에 부딪쳐 마음 고생을 하던 중에 1946년 말경에 김은석을 만나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후에는 신화 신학 성경연구회에서 말씀을 배웠고, 김은석의 권유로 서울 필운동교회에서 개최된 신학교육을 받았다. 김상호는 이곳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다 좋게 받아드렸으나 성령론만은 받아드리지 않고 부강에 내려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통해서 성령 연구를 계속하며 부흥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김은석의 청원에 의해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제 2대 교역자로 부임하게 되었다. 6·25사변 중에 광주에서 순복음 교회 총회에 다녀와, 그것이 인연이 되어 1960년도 초 순복음 교회로 넘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무국장 겸 오산리 국제 순복음 기도원 책임 목사를 역임⁹⁰⁾한 후 2007년 소천했다.

* 김정만

충북 증원이 고향이며 이웃 마을 반능에 들린 정찬성과 김은석으로부터 전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어느날 김은석과 정찬성이 합동으로 부흥회를 인도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침례를 주면서 김정만에게만 주지 않자, 떠나는 목사들을 붙잡고 1시간 가량을 실랑이 한 끝에 냇가로 내려가 김은석에게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고 은혜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모두 말라져 있었다 한다.

은혜를 받고 열심히 반능교회를 섬기던 중에 담임목사였던 정찬성의 권유를 받고 부강으로 와 신화신학 성경 연구회에서 공부하였다. 3개월 후 정찬성이 교회를 김정만에게 맡기고 사임하자(1946년)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계속 성경공부를 위해 부강에 다녔다. 반능에서 부강까지는 200리(80km) 길이였지만, 월요일 새벽예배를 마친 다음 출발해서 저녁까지 걸어서 부강에 도착하곤 하였다.

김정만은 사모의 친정이 있던 송정리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1954년 예배당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렸다. 그 때 김은석이 설교를 하였다.

그 후 황청리 교회로 옮겨갔다가 다시 반능교회로 옮겼는데, 폐병을 얻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가 폐병 말기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90)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op. cit., 316-317

에 힐 요한 선교사가 약을 주며 치료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했다한다. 김정만은 항상 기도하던 음성의 고사리봉을 찾아 하나님께 매달렸다. 일주일이 지나자 당시 눈이 내려 쌓였었는데, 김정만이 있던 곳은 눈이 녹아 있었고, 앉았던 자리의 소나무는 뽑혀 있었다. 그만큼 혼신을 다해 기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몸이 가볍고 상쾌해져 집에 내려와 보니 씻은 듯이 병이 낫아 있었다. 기도로 고침 받은 김정만은 열성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원근 각처에서 교인들이 모여들어 격주로 충북 각지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들도 뜻을 같이 하였다. 그후 중원군 산이면에 개척을 하고, 다시 반능교회로 왔다가 1968년 갖도교회(현 삼방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전 주민들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1971년에 강원도 원주교회를 개척하고, 1973년 서울 상계동 희망촌 교회로 부임하였다가 1981년 12월 이신이 소천 하던 때에 다시 소생하기 어려운 중병을 얻어 연세대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고쳐 주었고 오늘의 상계 그리스도의 교회 자리를 매입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셨다. 김정만은 평상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성경에 없는 권사를 세우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였다.⁹¹⁾

* 심영진

대전에서 기독교 장로교 목사였던 심영진은 성경을 묵상하며 세례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다 자기가 받은 약식 세례가 옳지 않음을 깨닫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침례를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고심하던 중 김은석을 만나 세례에 관한 논의를 1주일 동안 성경을 놓고 논의한 결과, 침례를 결정하고 김은석에게 대전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다. 침례 받기 전 개척한 교회가 '성화교회'이다. 교회 이름은 성신의 불이 내렸다고 해서 오순절 날에 기독교 장로교 총회에서 지어준 것이다. 침례를 받고 나서 양심상 기독교 장로교회에 그대로 머물 수가 없어 교회 명칭을 '대전의 기독교교회'라고 개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여 성장을 거듭하고 그 후 5년 만에 500명 교회를 네 번째로 건축하였고, '도마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30년 시무 후 서울 '돈암동 그리스

91) 김홍철, op. cit., p78-81

도의 교회'에서도 시무 하였다.⁹²⁾

* 이신

이신은 1927년 12월 25일 전남 돌산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철저한 유교선비였던 그의 할아버지께서 기독교에 입교하여 2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다. 그의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으로 소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으로 나와 지금의 부산상고의 전신인 '부산초량상업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이때부터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당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부산시립도서관의 미술에 관한 책을 거의 다 탐독하였으며 해방을 맞던 1945년 결혼을 했다.

은행원으로 안정된 직장을 꾸려 생활하던 그는 1946년 조부와 외조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냉천동의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해서 6.25가 발발되기 직전에 어렵게 졸업할 수 있었다.

졸업 후 그는 먼저 한국감리교회의 전도사로서 충청도 전의로 첫 부임을 떠났으나 곧 이은 전쟁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 시기에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전환이라고 할 한 사건을 겪게 된다. 즉 그는 당시 충청남 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여 뜨거운 성령의 바람으로 전개되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을 접하게 된 것이다. 모든 교과의 분열을 거두고 신약 시대의 교회를 돌아가자는 교회의 순결과 일치 운동에 깊이 공감하여 1951년 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되었다. 그의 '그리스도의 교회'에로의 환원은 모든 인간적인 종파와 교권적 권의를 버리고 본래적이고 순수한 것으로 돌아가자는 그의 순수함과 근원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 열망과 환원은 그 이후로 그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삶이 되게 한 주원인이 되었다. 이 환원과 더불어 그는 자신의 이름을 종래의 '이만수'에서 '이신'으로 고쳤다.

50년대 초 광주 지방에서 김은석 등의 뜨거운 '성경 연구회' 운동을 통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을 만나게 된 그는 그 후 부여로 부임하였으나 그곳에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들의 성령 이해와 심각한 갈등을 겪게

92) Ibid. p73

된다. 즉 미국의 환원운동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과 단일성을 회복하고 초대교회로의 환원을 위해 노력하긴 했으나 그들이 서구 계몽주의의 영향에 따르는 합리성으로 인해 신앙의 영감적인 면이나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 등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 환원하게 된 그로서는 동조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건 이후 잠깐 동안의 '서울 성서 신학교'에서의 활동, 그의 제2의 고향이 된 충북 괴산군 소수면에서의 목회 생활, 부산에서의 방송 선교 활동, 그리고 서울 돈암동에서의 목회와 대전 '한국 성서 신학교'와의 관계 등이 그가 1967년 미국으로 뒤늦은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의 활동이었다.

미국에서는 '네브라스카(Nebraska) 크리스천 대학'에서 신학사를 다시 취득하였고, '드레이크(Drake) 대학원'을 거쳐 한국 감리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수학했던 내쉬빌의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원'에서 1971년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이때 썼던 논문이 '전위 묵시문학 현상-묵시문학의 현상학적 고찰(The phenomenon of Avant-grade Apocalyptic : Phenomenological Resources for the Interpretation of Apocalyptic)'로서 바로 자신의 모습과도 닮은 친구약 중간기의 창조적 소수인 '묵시문학자'들에 대한 연구였다.

1971년 여름 한국 교회와 가족에 대한 강한 염려와 그리움으로 학위를 끝마치자마자 곧바로 고국으로 향하였으나 그 후 10년 뒤 운명하기까지 철저히 겪었던 주변의 물이해와 배척,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가난과 고독이었다. 귀국 후 몇몇 대학에 전임 가능성이 타진되었으나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이 문제가 되었다. 그는 효창동의 '대한 기독교 신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시간 강사 정도의 대우만 받으며 소천하기 전까지 재직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다. 1975년 유일한 터전이던 명륜동 산동네의 무허가 집이 시에 의해서 철거되어 그들 부부는 젊은 시절의 개척지였던 충청도 산골의 소수교회로 가게 되었다. 소수로 내려간 후 그는 부산으로, 서울로 먼 길을 다니며 강의를 하였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설교하였다. 명륜동 산꼭대기의 가난한 사람들과 아이들을 모아 놓고도, 뒤쳐진 시골 교회의 교역자들과 변방 교단의 신학생들을 불러 모아서도,

또 소천하기 전 해에는 안양의 가난한 부녀자들과 노인들을 모아 놓고도 지성을 다해 설교하고 가르쳤다.

시골로 내려간 지 3년 만에 다시 서울 원효로의 여동생 집을 거쳐로 삼아 이사한 후 1979년에 그가 참으로 존경하던 러시아 사상가 니콜라이 베르자예프의 「노예냐 자유냐」가 ‘인간사’에서 번역 출간 되었고, 1980년에는 그가 60년대 초 부산에서 방송 선교하던 원고들이 「산다는 것·믿는다는 것」으로 묶여져 나왔으며, 또한 당시 옛 동료였던 ‘하나님의 성회’의 한 목사님을 통해 ‘순복음 신학교’와도 인연을 맺어 거기서도 가르쳤으며 그 교회 청년 선교지 「카리스마」에 ‘카리스마적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그분의 일생 동안의 삶과 사고로 영글은 참으로 독창적인 성령의 신학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1년 여름방학 동안 20여명의 신학생들을 데리고 충남 논산군 산골 독방이 마을로 여름캠프를 떠나, 거기서 자신의 모든 혼을 다해 희랍어 강의와 설교, 그리고 그가 당시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던 베르자예프의 또 다른 저서 「인간의 운명」의 번역 등으로 열악한 식사와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행군을 하여 거기서 병을 얻었다.

그 후 운명하기 전까지 4개월 동안 YMCA에서의 여러 번의 공개 강의, 극동방송에서의 설교,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글들인 ‘삶과 죽음’, ‘이단이란 무엇인가’ 등을 남겼다. 베르자예프의 「인간의 운명」은 지인의 도움으로 완역되어 ‘기독교서회’에서 출간되었고, 1981년 12월 17일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 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⁹³⁾

93) 이은선, op. cit., p283-287

V. 결론

본 논문의 서론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진 김은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김은석 개인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김은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인물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인물에 관한 선행 연구로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구자였던 동석기 전도자에 대한 연구는 김익진과 기준서에 의해 진행되었고 오수강은 1927년 충남 부여에 기독교회를 세워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석을 다진 성낙소 목사님의 자서전을 현대어로 엮어 출간하였고, 이은대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를 한국에 뿌리내리게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최상현 목사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김은석의 생애와 신학사상을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검토해보았다. 자료의 부족이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으나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료를 분석, 고찰, 정리하고 역사적 사실 자체를 축출하여 재구성 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김은석의 신학사상은 교회사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비교, 정리하였다. 특히 김은석의 성령 운동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이신 박사의 성령론을 토대로 그의 성령론을 연구하였고 김은석의 신학사상이 한국 교회사에서 가지는 위치와 의의에 유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김은석이 태어났던 1902년부터 소천한 1963년까지, 즉 60여 년 동안의 시기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시대적 배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사건, 전반적인 시대적 흐름 등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그러나 김은석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는 그의 목회 사역의 황금기였던 1940 ~ 1950년대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본론 II장 “김은석의 생애와 사역” 부분에서는 그의 출생부터 소천 때까지

의 생애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1902년 황해도 평산군 평산면의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였고, 성경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기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독하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었다. 장로교 출신인 김은석은 1920-30년대의 어려운 국내사정속에서도 혼신을 다해 전도하다 20대 후반에 만주로 건너가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그는 1935년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관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김명석, 박점상 등을 만났으며 산구현 도구야마시에 있던 그리스도의 교회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1944년 귀국하여 해방을 맞은 후 1945년 부강 오데골교회로 초빙되어 성령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장로교에서 제명되었으며 그로인해 부강 교회를 개척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게 되었다. 또한 신화신학 성경연구원을 통한 성경 연구와 복음 전도를 통해 충청 이남 지역에 80여개의 교회를 개척, 또는 환원시키는 거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1963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본론 III장 “김은석의 신학 사상”에서는 초기 환원 운동자들의 성령론과 김은석의 성령론을 비교 분석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첫째, 성경 연구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양측이 구별된다. 영국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존 로크의 영향을 받은 초기 환원 운동자들은 학문적 연구와 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구적인 성서 해석을 고집하였고, 말씀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개념으로 인해 메마른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반해 반면 김은석은 체계적인 학습과 학문적 연구를 통한 접근이 아닌 다독을 통한 한국인의 자각 있는 성서 이해로써 성서의 영감적인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실존적 만남을 강조하였다.

둘째, 성령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초기 환원 운동가들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리는 계시가 성령의 역사로서, 기적이나 예언과 같은 초자연적 은사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활동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나타남이 사도시대에 한정되고 당시의 성인들의 활동에 속하고 선의 영으로서 그 영향력이 모든 초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인식되고 체험되었고,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궁극적 승리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

말씀과 진리로 역사하신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성령의 기능과 역사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부정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반면에 김은석은 성경을 통해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이것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아가서 인격의 전면적인 해방이 이루어지며 여러 가지 초현실적인 사건이 나타나며 성령의 역사는 시대와 상관없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강림의 단회성과 영속성의 문제는 현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끝나지 않은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셋째, 각 개인에 성령이 내주하는 과정상에 차이가 있다. 초기 환원운동가들은 침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주시어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고 주장하며 세례나 성만찬 예식을 행함으로써 그 예전 자체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김은석은 물 침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하였으며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카리스마(은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것은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도록 하여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구원에 관한 확신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동시에 성령 체험을 통한 인격적 변화(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여 신비주의와 구별하였다.

본론 IV장 “김은석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김은석의 사역과 그의 성령론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교회사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김은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진리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열의와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려는 진실성을 지닌 한국내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시작된 환원운동이 외국 선교사와 외국 교회 지도자들과 접촉 후 변질되어 미국적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런 기독교 이해를 그대로 한국에 이식시키려 했던 초기의 한국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고 기도 생활에 주력하면서 성령의 영감적인 면을 추구하며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자생적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다. 또한 초대 교회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충청 이남 지방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환원시킨 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을 한국적으로 자각하는데 동기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과 외국의 교리적인 영향으로 그 주체성이 흔들린 초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환원운동은 분과주의, 권위주의 및 성서를 벗어난 인위적 신조나 신념으로부터 돌이켜 성서로, 즉 초대의 순수한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 운동의 바탕위에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김은석의 부장 그리스도의 교회는 환원운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단지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세워진 순수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점을 깊게 인식해야한다. 이는 충청 이남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자생론에 대한 강력한 증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개된 수많은 그의 동역자들이 이러한 사실과 그의 사역을 증언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은석은 초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숨 바쳐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자 했던 그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 본인의 끼니를 걸러 가며 제자와 다른 사역자를 도왔던 그의 행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서구의 합리주의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리에 맞서 오직 하나님의 카리스마(은사)에 의존하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에 발자취를 남긴 김은석의 사역은 현재 신학적 논리와 교회 부흥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여러 교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며 아쉬웠던 점은 한국에서 성령운동으로 크게 부흥된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성장을 보며, 당시 김은석의 성령운동이 그리스도 교회의 미국 선교사들과 서울 지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목회자들의 소극적인 성령관에 의해 커다란 부흥을 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때와 장소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김은석의 사역은 성령세례의 단회성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오늘날도 초대 교회와 같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교회 발전에 주동적인 힘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성령을 개인이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 성령체험의 신비한 체험만을 중시하는 등 성서에 위배되는 것들은 배격되어야 한다.

성령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77주년을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성서적인 초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인물들이 더 많이 찾아지고 연구되어 그들의 업적이 후대의 귀감이 되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1. 국문서적

- 강석중, 「성령세례는 오순절로 끝나지 않았다」 서울: 은혜출판사, 2006
- 권인원, 「그리스도의 교회(환원운동사편)」 서울: 문연사, 1995.
- 김세복,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1930-1968)」 서울; 참빛사, 1969
- 김수진, 「한일교회의 역사」 서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0
- 김익진, 「신약교회 운동사」 서울: 참빛출판사, 1986
- 김익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 운동사」 서울: 태광사, 1987
- 김익진, 「환원 운동사」 서울: 참빛출판사, 1987.
-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 대전: 태광인쇄사, 1991
-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광주: 도서출판 한림, 2006
- 박대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서울: 오름, 2001
- 안영복, 「성령론의 바른 이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 오수강,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서울: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2007
- 오영석, 「조직신학의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이 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 운동전개」 서울: 한길사, 1976
- 이은대, 「최상현 목사의 사상과 신학」 서울: 콤파출판사, 2007
- 이은선, 「이신의 술리어리즘과 영의 신학」 서울: 종로서적, 1992
- 장성우, 「환원교리와 역사」 서울: 태광출판사, 1992
- 정원태, 「열정 칼빈주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조동호,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02
- 차영배, 「오순절 성령강림의 단회성과 영속성」 서울: 총신대학신학대학원, 1983
-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서울: 서울문화인쇄, 2003
- 한국기독교 협의회 「한국 기독교 연감」 서울, 1957, 1965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서울: 기독교문사, 1990

2. 일반논문

- 김익진, 「동석기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8호, 1998년 3월호
- 김익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동석기와 강명석을 중심으로」 <역사신학 논총> 제 4집, 2002

- 김익진,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4.
- 김홍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성장사」 서울: 한국목회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6
- 신민철, 「그리스도의 교회사 연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중심으로」 서울: 그리스도 신학대학 학사 논문, 1992
- 임정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적 변천과정」 충남: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6

3. 외국서적

- Abraham Kuyper, 「성령론」 김해연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88
- Alexander Campbell. *The Christian System*.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mpany, 1939
- Brownlow, Leroy. *Why I Am a Member of the The Church of Christ*. Fort Worth, Texas: Brownlow Publishing Co., 장성우역, 「왜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인가」 서울: 태광출판사, 1993
- Don Basham, *The Holy Spirit*, Pittsburgh: Whitaker House, 1980
- Everett Ferguson, *The Church of Christ*, Eerdmans Publishing Co., 기준서역, 「성서적인 교회」 서울: 그리스도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 James DeForest Murch, *Christians Only*,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1975
- Robert Richardson, *Memoir of Alexander Campbell*,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1897
- The Central Africa Mission Evangelistic Literature Service,
Christian Doctrine: A Book of Basic Beliefs, Cincinnati, OH: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1988
- Tucker, M. H. *Restoration Then and Now*. 김익진역, 「환원운동의 역사」 서울: 태광출판사, 1987

4. 전자 출판물

- 지철희, 「김은석과 부강교회 집회들에 관한 회고」,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http://kccs.pe.kr/xianch28.htm>